

수협 탐방

<17> 근해유망수협

참조기·멸치...年 400억원 위판고

조합원 100여명...어족 보호·금융 서비스도 활발

바다사나이의 진짜 고기잡이가 이뤄지는 남해안 항구도시 여수엔 남해안 중서부 여수와 남해, 그리고 북쪽 근해를 중심으로 유망수협을 잡는 어업인들이 구성된 근해유망수협(조합장 김이태)이 자리하고 있다. 참조기가 주로 나고 옥돔, 대구, 병어 등이 잡힌다.

1963년 창립, 한국기선산치유망어업협동조합으로 출발한 근해유망수협은 조합원 100여명, 임직원 37명의 조그마한 수협이지만 부지런하고 열성적인 수협으로 이름이 나았다.

특히 수협에서 유통하는 싱싱한 국내산 참조기는 조합원어선이 인근 연근해에서 유망수협으로 출항한 것으로, 산지에서 직접 구매해 만든 최상의 상품으로 보약이나 다름없어 인정을 받는다. 매년 400억원의 위판고를 올리고 있다.

수산물 유통 외에도 예·적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업무도 활발하다. 북쪽지점과 삼천포지점을 통해 조합원들과

가까이에서 편안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경기도 의왕에 포일동지점을 열어 상호금융사업에도 매진하고 있다.

고기를 잡는 어업의 수협인만큼 지도사업에도 열성적이다.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 안전조업지도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외국인선원 고용 증가에 따라 취업과 안전 등 제반 업무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최근에는 유난히도 해난사고가 잦아졌기 때문이다.

또 어족 보호 차원에서 매년 4월부터 8월까지 금어기를 지정해 자체적으로 자원회복사업에도 동참하고 있다.

공제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어선과 어선원공제 가입을 독려, 언제 닥칠지 모를 해난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올해 공제로 함께 34억8000만원의 성과를 냈다.

근해유망어업의 특성상 한계도 있어 극복해야 할 것도 많다. 인근 연안에서 기업형 불



김이태 조합장

법어인 대형기선 저인망(일명 쌍끌이)과 트롤어선들이 허가구역을 벗어난 불법 조업으로 각종 어류를 씹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물때에 맞춰 바다로 나가 그물을 끌어 올려보지만, 매년 헛그릇만 올라와 인건비도 못 건지고 있다”며 “이들 대형 트롤어선들의 불법 어로 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어로 행위도 문제다. 한·중 FTA에 타결로 수산업의 위축이 예견된 가운데 이는 정부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김이태 조합장은 “수협을 아껴주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며 “경영상신과 친절로 내실있고 알찬 수협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남해안 중서부에서 멸치잡이를 마친 근해유망어선이 만천으로 모퉁이인 여수 국동항으로 들어오고 있다. <근해유망수협 제공>

재배면적 감소·병충해·기상 악화...올 고추·참깨 생산량 3년만에 줄어

고추와 참깨 생산량이 재배 면적 감소, 병충해,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3년 만에 줄었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고추 생산량은 8만5100t으로 지난해보다 27.8% 줄었다. 고추 생산량이 감소한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은 국내 고추 가격하락으로 재배 면적이 큰 폭으로 줄고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병충해도 발생해 생산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고추 재배 면적은 3만6100ha로 지난해보다 20.4% 줄고 단위면적(10a)당 생산량은 236kg으로 지난해보다 9.2%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 고추 생산량은 최근 5개년 중 최고고와 최저 연도를 뺀 나머지 3개년의 평균 생산량인 평년 생산량(8만4500t)보다는 0.7% 많은 수준이다.

참깨 재배 면적은 2만8400ha로 지난해보다

22.4% 증가했지만 8월 개화기의 잦은 강우, 낮은 기온에 따른 일조시간 부족으로 생육이 원활하지 못해 단위면적(10a)당 생산량이 줄면서 전체 생산량이 감소했다.

올해 참깨의 10a당 생산량은 43kg으로 지난해보다 18.9% 감소했다.

도별 참깨 생산량은 전남이 2900t으로 가장 많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25일 서울 프리마호텔에서 식품기업수출협의회 총회를 개최해 한·중 FTA를 이후 식품수출확대 방안 등에 논의했다. <aT 제공>

“한·중 FTA를 농수산물 수출 기회 만들자”

농식품부·농수산식품유통공사·식품기업수출협의 총회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지난 25일 식품기업수출협의회 총회를 개최해 한·중 FTA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aT를 비롯해 CJ제일제당, 농심, 대상 등 주요 식품기업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이날 총회에서는 한·중 FTA를 식품 수출 확대 기회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외관련 aT는 한·중 FTA 대책사업으로 우리 수출 농식품의 중국 통관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중국 통관 업무 담당기관인 국가질량감독검역국중국 산하 인증·검사기관인 ‘CCIC’(中國檢驗認證集團)와 협력해 수출제품 라벨링 제작 및 등록, 업체등록 지원업무를 실시중이

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중국 최대 온라인 기업인 ‘알리바바’에 우리나라 24개 업체, 872개 우수 농식품을 입점시키기도 했다. 또한 aT는 총회와 더불어 ‘국내외 식품안전 정책 동향과 식품수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해외수출 시장 박이수 세미나도 함께 개최했다.

김재수 aT 사장은 “한중 FTA 타결로 양국 간 농식품 교역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이번 식품기업수출협의회 총회를 계기로 수출확대를 위한 민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알리바바’ 온라인마켓 입점과 같은 대중국 온라인 마케팅도 확대하여 중국을 우리 식품의 수출 주력 시장으로 육성하는데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제철 맞은 오징어 어디로 사라졌나

중국 어선 북한 해역 싸늘이...동해안 어획량 급감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오징어가 싸늘이 불법조업 등의 영향으로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귀한 물’이 됐다.

26일 수산정보포털의 산지위반 경각 정보에 따르면 올 9~11월 오징어 위판 물량은 6만1325t으로, 전년 동기(8만1936t) 대비 25% 감소했다.

이에 정부는 어족 보호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4~5월 두 달 간 오징어 금어기를 시행하기도 했다. 6월 초 본격 조업을 재개한 때만해도 지난해 대비 오징어 어획량이 늘어 풍어를 기대했으나 이후 다시 급격한 감소세로 돌아서 반짝 효과에 그쳤다.

특히 올해 오징어가 자취를 감춘 것은 중국에서 대형 어선을 동원해 동해안 오징어를 씹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징어는 회유성 어종으로 남해에서 산란 후 4월부터 동해로 북상해 울릉도를 거쳐 북한, 러시아 연안까지 올라간다. 이후 9~10월께 다시 동해안으로 남하해 9월 말부터 이듬해 2월엔 겨울철까지 성어를 맞는다.

그러나 지난 5월 북한과 중국이 동해 북한 수역 조업약

정을 맺어 올해 북한 해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은 1600척을 넘겼다. 이 어선들이 오징어가 남쪽으로 내려올 틈도 없이 치어까지 낚아가 국내 조업이 큰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여러 개의 낚시를 이용한 채낚기 방식으로 조업하는 국내 어선과 달리 중국 어선은 대형 쌍끌이 어선으로 조업해 국내 오징어 물량을 씹어하고 있다. 이에 국내 오징어 씨가 마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어획량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23일 기준 동해안 대표 수협인 포항수협의 오징어(1kg) 산지 위판가는 8831원으로 지난해(8207원)보다 8% 가량 올라있는 상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중국 어선의 무분별한 어획으로 대중적인 수산물인 오징어가 자취를 감춘 상황”이라며 “산지 곳곳을 뛰어다니며 제철 수산물을 저렴하게 선보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원적외선티터, 대형제습기
펠릿온풍기, 건조기, 범시온탕소독기

기존 난방비 대비 60% 절감효과

펠릿 온풍기외 2종
비닐하우스, 식당, 상가, 유치원, 사무실, 전원주택, 펜션 등

건조기외 2종

원적외선 히터외 11종

대형 제습기외 2종

이동식 에어컨외 11종

범시 온탕 소독기외 5종

무등산업 (062) 372-7585 (010)-3601-7701
사·군 취업점 선착순 모집

2015학년도 수시합격자 및 예비 중국어과 입학생을 위한 중국어 기초 특강

12월 예비대학생 중국어 대 특강

●접수기간 : 11월 17일 ~ 11월 28일 ●개강일 : 12월 1일

대학생활·취업필수 남들보다 앞서 갈 수 있습니다. 중국어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특강대상 ▶ 수능 응시생 ▶ HSK 중국어 자격증에 도전하고자 하는 분
▶ 중문과 예비 대학생 ▶ 입학 전 시간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 분

특강과정 2개월 중국어 기초 완성반
수강기간 || 12월1일 ~ 1월 30일
수강특징 || 2015학년도 대학 예비 입학생을 대상으로 구성된 소수정원제 그룹수업
입학 전 기초과정 총 정리 및 대학1년 과정 사전 학습
충분한 자극제, 유대관계 형성으로 학습 동기 부여

강의시간 매일반 ▶ 오후반 5시 ~ 6시
매일반 ▶ 저녁반 7시 ~ 8시

수강특전 1. 중국어 기초 단어쓰기 노트 무료증정
2. 수업교재 2권 무료증정

www.gotochina.co.kr
지금전화주세요!!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233-9582
(공) 구오팔리

GOChina 고차이나 중국어학원